

'위성정당' 출현에 준연동형 첫 선거 무색

거대양당 47석 중 36석 독식...다당제 도입 취지 훼손 변질된 개정 선거법에 군소정당 원내 진입 되레 막아

국회 구성의 다양성과 대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총선에 첫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 거대 양당이 '꼼수'를 부려 장담한 '위성 정당'이 비례대표까지 독식하면서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거대 양당 구도만이 더욱 견고해졌기 때문이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1대 총선 개표 결과 비례대표 의석은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이 19석,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석을 각각 차지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위원회의

를 열어 이 같은 비례대표 투표 득표율에 따른 정당별 연동형·병립형 의석 배분을 확정해 발표했다. 총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 가지게 된 정당은 3% 이상의 득표율을 가진 미래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등 총 5곳이다.

가장 높은 33.84%의 득표율을 기록한 미래한국당이 19석(연동형 12석+병립형 7석)을 차지했다. 이어 33.35%의 득표율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17석(연동형 11석+병립형 6석)을 가져갔다. 정의당(9.67%)은 5석

(연동형 3석+병립형 2석)을 배분받았다. 국민의당(6.79%)과 열린민주당(5.42%)은 각각 3석(연동형 2석+병립형 1석)을 받았다. 민생당 등 나머지 정당들은 3% 미만으로 득표해 의석을 가지지 못했다. 이번 총선에서 첫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사실상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 독식한 셈이다.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에 대한 지지가 70%에 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20대 국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해온 정의당, 민생당 등 진보정당 및 군소정당들은 21대 국회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됐다. 이는 미래통합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도의 허점을 왜곡 이용했고, 이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가세하면서 사실상

초 도입 취지가 무색한 꼴이 됐다. 20대 국회는 소수정당 약진과 다당제 확립을 기치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선거법을 개정했지만, 민주당과 통합당이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법 개정 취지는 퇴색하고 '도로 양당제' 결과가 나왔다. 이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의당의 한 관계자는 "새롭게 출범하는 제21대 국회에서 비례의석을 더 확보하고 연동률을 높이며,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을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또한, 지역구에 출마하는 정당은 무조건 비례대표 후보를 내야 하는 방식으로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원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전남 출신 비례대표 5명 당선

시민당 김홍걸·김경만, 한국당 전주혜, 정의당 강은미, 국민의당 권은희

4·15 총선에서 광주·전남지역 출신 비례대표 국회의원 4명도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2번을 받은 김경만 전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전석훈 전 전남지사 딸인 미래한국당 전주혜 후보, 광주 출신 정의당 강은미 후보, 광산을 현역 의원인 국민의당 권은희 후보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됐다.

16일 각 정당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당선자는 강진 출신으로 광주 중앙중학교와 살례시오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외대 영어학과를 나왔다. 졸업 직후 중소기업중앙회에 입사해 2018년까지 주요 보직을 거치며 중소기업 정책과 지원 업무를 맡았다.

미래한국당 전주혜 당선자는 1984년 전두환 정권 당시 도정을 책임졌던 전석훈 전 전남지사의 딸이다. 전 전 지사는 제15대 총선에서 신한국민당 전국구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며, 전 당선자까지 부녀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전 당선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판사로 재직하다 변호사로 활동했다.

정의당에서는 광주시의원 출신 강은미 전 부대표가 비례대표 3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광주 출신 정의당 국회의원인 강 당선자가 최하다. 강 당선자는 광주 중앙고교와 전남대를 졸업하고, 광주 서구의회와 광주시의원을 지내는 등 광주에 정치적 기반을 둔 여성 정치인이다. 2015년 재보궐 선거와 2016년 20대 총선에서 광주 서을 선거구에 출마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광산을 선거구에서 재선에 성공했던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지역구 출마를 포기하고 국민의당 비례 3번으로 출마해 3선 고지에 올랐다.

더불어시민당 김홍걸 당선자도 광주·전남지역과 인연을 맺고 있다. 김 당선자는 아버지인 고 김대중 전 대통령(6선)과 장남 고 김홍일 전 의원(3선), 차남 김홍업 전 의원(초선)에 이어 4부자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진기록을 세웠다. 김 당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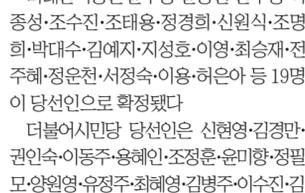
김홍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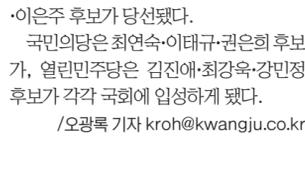
김경만



전주혜



강은미



권은희

방송 3사 출구조사 '슈퍼여당' 못 맞췄다

민주당 과반 압승은 예측

4·15 총선에서 지상파 3사(KBS·MBC·SBS) 출구조사는 더불어민주당의 과반 압승은 맞췄지만 '슈퍼여당'의 탄생 예측은 빗나갔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결과, 민주당은 전체 의석 300개 중 지역구에서만 163석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당은 17석으로 예상됐다. 미래통합당은 지역구 84석을 가져가고, 비례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은 19석을 확보해 개헌저지선 '턱걸이인' 103석을 차지할 것으로 파악된다.

선거 당일인 전날 오후 6시 15분께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결과를 분석해 민주당이 시민당과 함께 153~178석을, 통합당과 미래한국이 107~133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민주당과 시민당이 1당은 물론이고 과반 이상의 압승을 거둘 것이라는 큰 틀의 예측은 맞았지만, 정당별 의석수를 정확히 짚어내지는 못했다.

방송사별로는 KBS의 경우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이 155~178석,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107~130석을 각각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MBC는 민주당과 시민당이 153~170석, 통합당과 한국당은 116~133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고, SBS는 민주당과 시민당 153~177석, 통합당과 한국당 107~131석을 얻을 것으로 분석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당선 스티커 붙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우회총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인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선거상황실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중합상황판에 당선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재산세 과표 9억 넘는 가구, 재난지원금 제외한다

홍남기 추경예산안 브리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고액자산가 '컷오프' 기준에 대해 "가구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을 넘어서거나 금융종합소득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상인 가구 등은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인 1478만 가구로 설정했다며 "소득 하위 70% 지원 기준은 긴급성과 형평성, 한정된 재정 여력 등을 종합 감안해 많은 토의와 고민 끝에 결정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견상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국민들에게는 너그럽게 헤아려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한 양해의 요청 말씀을 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기준에 긴급지원 성격으로 지급됐던 저소득층 소비쿠폰, 특별 아동돌봄쿠폰은 요건 해당 시(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지원받게 된다"며 "코로나19 대책의 큰 틀을 다 감안할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혜를 받는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220만원까지 더 지원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각 지자체의 전자화폐, 지역상품권을 활용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대한 "사용 시기 등을 한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지원금이 빠른 시간 내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소요 규모는 최종 9조7000억원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8대 2(서울은 7대 3) 비율로 나눠 부담하므로, 정부가 지자체 부담분을 제외한 7조6000억원 규모의 '원포인트 2차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더불어시민당, 광주·전남 득표율 60%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전남에서 60%에 달하는 높은 득표율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의 비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광주에서 47만698표를 얻어 득표율 60.95%를 기록했다. 7만6042표(9.84%)를 받은 2위 정의당과는 50%포인트 넘는 격차를 벌였다. 시민당과 '적통 경쟁'을 벌인 열린민주당은 8.18%(6만3203표) 득표율로 3위를 차지했다. 광주 8개 지역구에서 현역 의원 5명을 둔 민생당은 6.36%(4만

9188표) 득표율로 4위에 머물렀다. 미래통합당의 비례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은 3.18%(2만4600표)로 민주당(2.92%)보다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전남에서도 각 비례 정당의 득표 양상은 광주와 비슷했다. 더불어민주당이 60.34%(62만1100표)라는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정의당(9.56%), 민생당(7.41%), 열린민주당(6.96%), 미래한국(4.18%), 국민의당(3.87%), 민중당(3.05%) 등이 뒤를 이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공장부지 매매" (급매)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1397-13, 91-3
- 문평농공단지 6차선도로변
- 공장용지 14,916.9㎡, 건물 998㎡(H빔 구조)
- 태양광발전소 99kW 설치(건물 위)
- 공장, 창고, 사무실, 샤워장, 화장실 시설 구비
- 건물 일부 임대 중 (보증금 2천만원/월 190만원, 약 700㎡)
- 매일 4백만원 이상 수입(임대료 및 태양광 수익) 태양광은 대출 없고 순수익임

※ 매매가 25.5억 ※

인 하 건설(주)
010-3605-0214
062)655-4840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이웃을 위한 따뜻한 손길 어르신 돌봄은행이 함께합니다!

"이제는 자원봉사도 저축이 된다"

어르신 돌봄은행이란?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돌봄활동을 제공하면서 이를 돌봄포인트로 적립·관리하고, 만 65세 이후에 본인·가족·제3자가 돌봄활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돌봄봉사자 모집

- 돌봄봉사자 자격 : 만13세이상, 2인 1조 활동 권고, 4시간 교육 필수(교육시간도 포인트 혜택)
- 돌봄봉사자 혜택
 - 돌봄활동 시간 1포인트 적용(적립 및 사용)
 - 돌봄활동 시간 VMS 연계 적립
 - 돌봄포인트 적립 시 의무기부 20%
 - 적립한 포인트는 가족과 제3자에게 기부 가능
- 돌봄활동 범위
 - 인지활동: 정서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주택안전관리 등
 - 돌봄봉사자 기초관리교육: 수시 모집

돌봄대상자는?
● 어르신 돌봄은행에 회원등록한 만65세이상의 어르신 중 전문가가 돌봄활동 제공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자거나, 만 40세 이후 본인인 적립한 돌봄포인트와 기부받은 포인트의 합계가 100포인트 이상인 어르신
● 돌봄서비스 범위 : 인지활동·정서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주택 안전관리 등

CCC 동구노인종합복지관 www.noin.or.kr
☎ 062-232-4953

1688-3579 (전국 50개 시군구소재)

보건복지부 SSN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산행안내

5월2일(토)
▲광주금당산악회 5월2일(토) 여수 천혜의섬 연도 소리도 들을 백꽃 팽봉산 트래킹. 봉선동 롯데슈퍼앞 03:10, 진월동 식재료마트앞 03:20, 영주체육관 정문 03:30, 한국병원앞 03:40, 문예회관 정문 육교앞 03:50, 비엔날레 주차장 입구 04:00 * 다음날 패 광주금당산악회 ☎ 010 6294 2678, 010 3620 2284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8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이날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행구독 (062)220-0550